

## 會員 1,000명 돌파 기념 자축연

### 과학기술 발전과 소득증대의 초석 다짐

韓國技術士會(會長 李獻卿)는 지난 12월 9일 會員加入 1,000명 돌파를 紀念하는 自祝紀念行事를 가졌다.

이는 지난 8월 5일 78년도에 시행한 제1회 (통산 15회) 技術士試驗 최종합격자 315명이 발표되고 이들 합격자들이 기술사회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기술사회 창립 13년만에 1,000여명의 大家族으로 늘어나게 된 것.

한국기술사회는 1963년에 제정된 技術士法(제 32條)에 의거 經濟企劃院長官의 認可(제 8호)를 받아 65년 3월 15일 正式 設立된 이래 67년 3월 30일에 科技處長官으로 認可가 변경되었고 76년 12월 31일 기술사법이 폐지됨에 따라 74년 제정된 國家技術資格法에 의거해서 77년 9월 17일 社團法人體로 發足했다. 당시 회원은 740명, 그로부터 사단법인체로 정식 발족한지 1년여만에 會員數가 1,008명에 이르게 되었다. <78년 12월 9일 현재>

高度의 科學技術能力을 갖고 科學技術에 대한 計劃·調査에서부터 감리 시공 등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技術士들이 우리나라에서 배출되기 시작한 것은 과학기술 진흥책의 일환으로 전문화된 과학 기술자들의 필요성에 의해 1964년 제 1회 기술사자격 시험이 실시되면서 처음으로 기술사 67명이 탄생한 것이 최초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사제도를 실시하여 의사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직업기술자층이 형성되어 국가사회의 생산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技術士數는 총 1,170명. 이를 기술자격 분야별로 보면 ▲ 機械분야 88명(建設機械 9명), ▲ 金屬분야 24명, ▲ 化工분야 55명, ▲ 電氣분야 49명, ▲ 電子분야 6명, ▲ 通信분야 10명, ▲ 造船분야 21명, ▲ 航空분야 3명, ▲ 土木분야 485명(土木施工 239명) ▲ 建

築분야 197명(建築施工 164명). ▲ 纖維분야 35명, ▲ 鑛業분야 30명, ▲ 情報處理분야 11명, ▲ 에너지분야 12명, ▲ 國土開發분야 28명, ▲ 海洋분야 2명, ▲ 安全管理분야 9명, ▲ 生産管理분야 11명, ▲ 産業應用분야 85명, ▲ 기타 9명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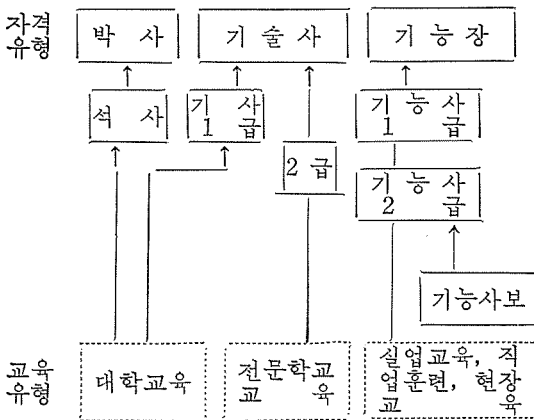
64年度の 첫 國家試驗에는 광복전후부터 20여년을 두고 축적된 각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557명이 농업, 수산, 임업, 전기, 기계, 화공, 섬유, 금속, 광업, 선박, 항공기, 건설, 응용이학 등 13개 부문에 응시했는데 이들 중에는 박사석사 학위 소지자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들도 多數에 달하였다. 이들 557명의 應試者중 경력심사 필기, 구술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 67명이, 농업, 기계, 섬유 부문에서 각 7명씩, 전기 15명, 화공, 금속, 항공부문 각 2명씩, 광업 4명, 건설 20명, 응용이학 부문에서 1명 등으로 배출되었으나 수산, 임업, 선박 3개 부문에서는 한명의 합격자도 없었다. 그러다가 2회부터는 그 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10회째까지도 매 회 20여명씩 배출되었다. 이는 응시자격요건에 實務經歷 7년, 9년 이상이라는 자격제한과 그당시만 해도 理工大學 卒業生數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11회부터는 그 수가 급증해서 12회에는 78명의 技術士가 탄생했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응시자 수가 급증해 금년에는 필기시험에만도 1,222명이 응시해서 346명이 합격

## 한국기술사회

했으며 필기시험 면제자(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23명 등 모두 369명이 면접시험을 치뤄 이 가운데 315명이 최종합격, 기술사 국가 시험이라 가장 많은 기술사가 탄생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앞으로 해마다 배출되는 기술사 수는 급증할 것인바 政府가 추진하고 있는 技術·技能人力強化와 理工系大學集中支援策 등이 더욱 이를 뒷받침해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에는 매년 1회씩 實施해 오던 國家試驗을 두번 實施,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技能士需要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라 하겠다.

技能士資格要件은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技師 1급자격을 취득한 후 當該분야에서 7년 이상 實務에 종사했거나 4년제 理工系大學을 卒業한 후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거나, 技師 2급 취득자 또는 초급, 실업고등, 전문학교 졸업자로 9년 이상 실무종사자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經歷審査에 일단 합격된 마음에 筆記試驗과 面接試驗을 거쳐야 技術士資格이 취득되므로 技術士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일단 자격증을 따내기만 하면 이들에게는 생활안정은 물론이고 技術者로서는 최고의 영예를 누리게 된다.



현재 技術士 資格소지자중 최고령자는 75세의 李鳳寅씨. (<株> 東和技術團 代表理事) 현재 李鳳寅씨는 기술사회 顧問이다.

技術士는 科技處와 建設部에 등록된 두부류로 나눌 수 있다. 科技處에 등록된 기술사는 機械·



金屬·化工·電氣·電子·通信·造船·航空·土木·建築·纖維·鑛業·情報處理·에너지·國土開發·海洋·安全管理·生産管理·産業應用 等 19개부문의 자격 소지자이며 이중 土木施工, 建築施工 자격소지자만이 建設부에 등록되어 있다. 초기에는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기술사만이 기술사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77년 定款이 改定되면서 建設부등록 기술사도 本人의 희망에 따라 會員加入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한국기술사회는 그동안 技術士들의 權益擁護와 수준 향상등을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특히 先進海外技術交流를 위해 日本技術士會와 「技術交流 및 國際親善을 圖謀」하기 위한 合意覺書를 지난 71년도에 日本의 다가다상무와 한국기술사회 鄭炳珮 상임이사간에 交換한 바 있다. 이 각서에 의해서 기수년은 일본에서 來韓하고, 우수년은 한국에서 訪日하여 필요한 技術諮問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매회 배출되는 기술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技術士歡迎會를 베풀고 있다.

『우리의 技術水準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國際水準以下인 技術을 그 以上으로 끌어 올리는데 技術士들의 役割이 중차대합니다.』 한국기술사회 鄭炳珮상임이사는 『技術士들의 役割은 國家經濟기반이 되는 科學技術 發展과 所得增大의 礎石이 될 것』이라고 재삼 강조하면서 기술사들의 권익옹호와 신분보장을 위해 기술사회가 설립되었으므로 앞으로 기술사들에 대한 社會的 認識과 價値觀을 확립시키는데 主力할 것을 다짐한다.